



## 김민석 국무총리,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접견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5.13(수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볼커 튀르크(Volker Türk)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접견하고,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인권이 갖는 중요성과 한-OHCHR\*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
\*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(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)

- 김 총리는 튀르크 최고대표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, 동인이 금번 방한 계기에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한데 대해, 아름다운 문화도시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적 바탕인 광주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하였다.

- 튀르크 최고대표는 OHCHR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세계 인권 무대에서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는 한국을 방문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,
  - 최근 지정학적 위기,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 등 어려움이 많으나 인권은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분열을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,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.

-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, 생명 등 가치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, 한국이 국제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함으로써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고자 하는바, 이 과정에서 한-OHCHR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.

- 이러한 측면에서,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AI 선도국가로서 유엔 기구들과 함께하는 ‘글로벌 AI 허브’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하고, 이를 통해 기술뿐

아니라 AI를 둘러싼 **윤리와 표준** 등에 관한 논의를 해 나가고자 한다며, AI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OHCHR측과도 의미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.

○ 이에 대해, 튀르크 최고대표는 글로벌 AI 허브의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하며 OHCHR로서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.

□ 아울러 튀르크 최고대표는 이산가족, 남북·억류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, OHCHR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으며,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팀 장 조정희 (02-2100-2109)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서기관 이예은 (02-2100-2132)

